

# 마약류 패취제 과다청구 심각 “DUR시스템, 기술적 한계 봉착”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2024 국정감사

서영석 의원, 초과사용 현황 분석  
6개월간 펜타닐 8년치 처방사례도  
“사용기간 미만영 등 사각지대 발생”

마약류인 펜타닐의 과다 사용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점검할 수 없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

(병·의원급 펜타닐 패취제 처방 현황)

구분	초과사용 수진자수	1인당 평균 처방매수
2021년	294	215
2022년	246	200
2023년	189	188

단위: 명, 매 /서영석 의원실

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환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에 달했다.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 받았다. 광주 광역시에 사는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

매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셈이다.

서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롯데월드 “다크 문 월드” 놀러오세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열린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 ‘다크 문 월드’에서 ‘스트리트 호러쇼: 더 마리오네트’ 연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 ‘다크 문 월드’를 진행한다. /손진영 기자 son@

## 롯데바이오, 5개 대학 산학협력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 동양미래대 등)

바이오 분야 전문인재 양성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한국폴리텍대학,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5개 대학은 ▲바이오 분야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공동개발 ▲바이오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제공 ▲롯데협약반 운영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활

동을 함께 추진한다. 또 산학협력을 통한 임직원 특강, 멘토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개 대학은 바이오 업계에서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상생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대학들과 지속 협력해 이론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김석환 “적극적 M&A 통해 성장 고도화”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한세에스24홀딩스 기업설명회  
연매출 2.8조, 영업이익 1938억 전망  
“내년 매출액 6% 이상 신장 목표”

의류 제조 및 유통, 온라인 서점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세에스24홀딩스 그룹이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글로벌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규사업 기회 발굴을 통해 성장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세에스24그룹에 따르면 이번 기업설명회는 글로벌 패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한세실업 생산기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임동환 한세엠케이 대표, 이육상 동아출판 대표, 최세라 에스24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세에스24그룹 2024 글로벌 기업설명회(IR)에서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이 그룹 M&A 전략과 목표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세에스24그룹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 각 계열사별 사업 현황과 실적, 자본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한세에스24홀딩스의 매출은 2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938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수익성을 강화하고 매출을 확대해 외형 성장을 이루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의 의지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래AMS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세에스24그룹 내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패션업계 트렌드를 전망하고 한세실업의 목표를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내년 미국이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류 소비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에는 한세실업의 매출액 6% 이상 신장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세실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동서양 대륙에 걸쳐 글로벌 전략 자산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건국대동물병원, 美 VECCS 레벨2 인증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

미국 외 대학 최초 획득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현영)이 지난 1일 미국의 대학으로는 최초로 미국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VECCS)로부터 동물병원 응급실 시설 레벨2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레벨2 인증은 사실상 미국 외 지역의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인증이다.

국제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VECCS·Veterinary Emergency & Critical Care Society)는 동물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중환자 치료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VECCS의 인증 평가는 운영 시간, 장비, 인력, 건축기준, 기반

시설, 물품, 의료 기록 및 자원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VECCS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총 3단계로 인증을 부여한다.

건국대 동물병원의 이번 레벨2 인증 획득은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서 미국 대학 외, 전 세계에서 최하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한현정 교수는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반려동물 헌혈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VECCS 인증도 미국 외 대학 최초로 획득했다”라며 “평소 반려동물들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시설 운영과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 아모레퍼시픽, 롱테이크 헤어오일 리뉴얼

모발 손상 관리기능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감성향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롱테이크에서 ‘헤어오일(사진)’을 재단장해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워진 ‘헤어오일’은 브랜드가 독보적으로 구현한 우디향을 표현하고 있고, 모발 손상 관리 효능이 강화됐다.

롱테이크 헤어오일은 글로벌 조향사와 공동개발한 향수 전용 향료, 오크우드 업사이클링 원료 등을 활용해 최대 120시간까지 잔향이 유지된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해당 제품은 동백꽃잎의 카멜리아 펩타이드 성분, 모발 단백질의 핵심 성분인 18종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모발 거칠기를 개선해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제공한다. 숲을 연출한 디자인과 제형이 잘 보이는 투명한 용기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30일까지 무신사 뷰티 채널에서 ‘롱테이크 헤어오일 기획전’을 함께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 대웅제약 “펙수클루 약효, 에소메프라졸 우위 확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한중 통합 분석결과 발표

대웅제약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4 유럽 최대 규모 소화기학회(UEGW 2024)’에서 자사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에 대한 한

국·중국 통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분석한 결과 대웅제약의 P-CAB 계열 치료제 ‘펙수클루’ 약효가 대조군 에소메프라졸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은 8주차에서 약 98.0%로, 펙수클루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다. 또 ‘주증상 완화율’ 지표에서도 펙수클루는 에소메프라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